

Ⅲ. 保險産業의 現況

1. 生命保險

가. 收入保險料 增加勢 持續

(1) 新契約¹⁾

○ 1997년 4~8월까지의 新契約을 보면 生存保險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의 급상승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2.3% 증가, 건수기준으로 8.4%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추세는 FY'95부터 지속되고 있음.

- 生存保險은 FY'96의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 및 교육보험의 신계약 감소로 전년보다 18.5%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급여력규제의 강화에 따라 지속되어 그 폭이 더욱 커져 1997년 4~8월에는 40.5%의 감소를 보임.

- 死亡保險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사고와 소득증대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대형사고 및 교통재해의 빈발에 따른 危險保障 需要가 增大됨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件數基準으로 45.2%, 金額基準으로 20.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4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보험감독원은 1997년 4월 1일부터 보험계약액을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공칭계약액"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하였음.

<표 III-1> 生命保險 新契約 推移¹⁾

(단위: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92	639,465	306,511	163,258	157,813	1,267,047
	17.8	100.8	5.7	15.6	28.5
FY'93	733,710	429,265	129,230	189,376	1,481,581
	14.7	40.1	-20.8	20.0	16.9
FY'94	1,215,022	460,281	106,958	195,301	1,977,562
	65.6	7.2	-17.2	3.1	33.5
FY'95	1,199,387	905,227	142,991	261,628	2,509,233
	-1.3	96.7	33.7	34.0	26.9
FY'96	977,336	1,032,417	258,516	268,424	2,536,693
	-18.5	14.1	80.8	2.6	1.1
'97.4~8 ²⁾	281,972	534,309	178,512	109,398	1,104,190
	-40.5	20.1	186.0	10.9	2.3

註: 1)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변경된 산출기준을 반영한 수치임.

<표 III-2> '97年 4~8月 生命保險 新契約 現況

(단위: 천건,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계	
'96.4~8	건수	1,985	2,431	394	804	5,614
	증가율	-11.0	19.9	0.3	-8.8	1.5
'97.4~8	건수	938	3,530	822	794	6,084
	증가율	-52.7	45.2	108.6	-1.2	8.4

- 生死混合保險은 보험차익과세 기간의 연장(5년→7년)과 이차배당자유화 시행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배당생사혼합보험 상품의 대폭적인 개발 및 판매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으로 108.6%, 금액기준으로 186.0%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團體保險은 기업도산이 잇따른 데 따른 경계로 보험회사가 종퇴보험인수에 소극적이었던 결과 전년동기 대비 전수기준으로 1.2%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은 10.9% 증가를 보임.

(2) 保有契約

- 보유계약액은 변경된 추정방법으로 FY'96에 500조원을 넘어섰고 19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한 543조원으로 생존보험 39.2%, 사망보험 40.6%, 생사혼합보험 9.1%, 단체보험 11.0%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3> 生命保險 保有契約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92	1,095,129	352,779	246,296	285,558	1,979,762
	55.3	17.8	12.4	14.4	100.0
FY'93	1,311,219	579,360	225,091	335,248	2,450,918
	53.5	23.6	9.2	13.7	100.0
FY'94	1,813,782	841,065	218,360	393,707	3,266,914
	55.5	25.7	6.7	12.1	100.0
FY'95	2,139,234	1,409,804	256,592	483,763	4,289,393
	49.9	32.9	6.0	11.3	100.0
FY'96	2,192,085	1,894,183	399,279	571,965	5,057,512
	43.3	37.5	7.9	11.3	100.0
'97.4~8	2,130,817	2,207,129	496,874	598,120	5,432,940
	39.2	40.6	9.1	11.0	100.0

註: 하단의 수치는 점유비임.

- 生存保險과 團體保險의 비중은 금리하향추세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판매비중 축소 등으로 점진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보장성 보험의 수요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내실화 추세 등으로 死亡保險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保有契約 件數 基準으로 생존보험과 단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9%p, 1.2%p 감소한 데 비하여,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소폭 증가하였음.

<표 III-4> '97年 8月 現在 保有契約 現況

(단위: 천건,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96. 4~8	건 수	12,702	11,327	2,122	5,363	31,514
	비 중	40.3	35.9	6.7	17.0	100.0
'97. 4~8	건 수	11,243	14,802	3,146	5,490	34,681
	비 중	32.4	42.7	9.1	15.8	100.0

(3) 收入保險料

- 1997년 8월 현재 收入保險料는 生死混合保險의 대폭적인 증가와 團體保險, 死亡保險의 新契約 成長에도 불구하고 生存保險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3.0% 증가하여 FY'96 성장률 8.1%를 넘어선 것임.

<표 III-5>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보 험 료	합 계
FY'92	67,392	68,446	90,576	226,414
	16.9	19.3	15.0	16.8
FY'93	58,537	76,854	105,143	240,534
	-13.1	12.3	16.1	6.2
FY'94	62,447	85,816	129,232	277,495
	6.7	11.7	22.9	15.4
FY'95	103,660	91,635	157,585	352,880
	66.0	6.8	21.9	27.2
FY'96	98,477	99,895	183,263	381,634
	-0.05	9.0	16.3	8.1
'97.4~8	39,843	40,818	79,853	160,514
	20.8	-0.2	17.2	13.0

註: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97.4~8월 동안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경우 생사혼합보험과 사망보험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7%로 소폭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51.8%나 증가했음.

- 生存保險에서는 개인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의 판매부진으로 前年 同期 대비 초회보험료가 64.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복지연금의 계속보험료 증가로 2차년도 이후 보험료는 8.3%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7.6% 감소하였음.

- 死亡保險은 전년동기 대비 38.3% 증가하였는데, 초회보험료가 46.7%, 2차년도 이후 보험료가 22.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生死混合保險에서는 비과세가계저축보험 등 비과세보험의 지속적인 계속보험료 증가 및 무배당생사혼합보험의 판매증가 등으로 초회보험료 3.1%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년도보험료가 321.2%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77.7% 증가하였음.
- 團體保險의 수입보험료는 직장인저축보험 및 종합보장직장인보험의 판매증가로 초회보험료가 6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초년도보험료와 2차년도 이후 보험료도 각각 17.3%, 26.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1.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III-6> '97年 4~8月 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억원, %)

		초회 보험료	초년도 보험료	2차년도 이후 보험료	합계
개 인 보 험	생존보험	2,769	14,786	49,554	67,109
		-64.6	-46.9	8.3	-17.6
	사망보험	1,854	8,606	14,657	25,117
		46.7	18.4	22.6	38.3
	생사혼합	6,982	14,671	4,945	26,598
		-3.1	321.2	15.8	77.7
	소 계	11,605	38,063	69,156	118,824
		-28.8	-1.3	15.9	3.7
단 체 보 험	28,238	2,755	10,698	41,691	
	69.3	17.3	26.8	51.8	
합 계	39,843	40,818	79,853	160,514	
	20.8	-0.3	17.3	13.0	

註: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4)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 收入保險料 기준으로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は 年初와 비교할 때 대형 3사가 속해 있는 既存社의 시장점유율만이 증가함.

- 既存社가 FY'96에 74.8%에서 1997년 8월 현재 77.1%로 증가한 반면, 地方社는 7.5%에서 6.1%, 內國社는 11.9%에서 11.5%로, 合作社는 5.4%에서 4.9%로 각각 감소하였음.

<표 III-7 > 生命保險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연 도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FY'92	81.8	8.1	4.6	5.3	0.2
FY'93	76.7	10.7	5.4	6.9	0.3
FY'94	73.7	11.8	5.9	8.2	0.4
FY'95	73.1	12.3	5.7	8.5	0.3
FY'96	74.8	11.9	5.4	7.5	0.4
'97.4~8	77.1	11.5	4.9	6.1	0.4

註: 수입보험료 기준임.

- 契約高를 기준으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존사를 제외한 기타사의 경우 新契約 점유율이 保有契約 점유율보다 높으며, 收入保險料基準으로는 지방사와 내국사만 초회보험료 점유율이 전체 보험료 점유율보다 높음.

<표 III-8> '97년 8월 生命保險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現況

(단위: %)

구 분	계약고		수입보험료	
	신계약	보유계약	초 회	전 체
기 존 사	76.6	80.0	72.2	77.1
내 국 사	11.0	9.4	14.6	11.5
합 작 사	5.7	5.5	2.6	4.9
지 방 사	5.3	3.9	10.5	6.1
외 국 사	1.5	1.2	0.1	0.4

나. 收支差 改善

(1) 保險金支給率의 繼續的인 減少勢 示顯

- '97년 4~8월까지의 支給保險金은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96년에는 9.6% 증가)하였으나, 保險金支給率은 전년동기의 69.4%보다 다소 낮은 68.4%를 기록함.
 - 이는 지급보험금에서 큰 비중(약 50.8%)을 차지하는 生存保險의 還給金과 團體保險의 還給金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임(생존보험 환급금 : 8.5%→4.8%, 단체보험 환급금 : 65.6%→42.1%).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소폭으로 증가(-11.1%→2.1%)하였으나, 환급금 및 배당금은 증가율이 減少하여(65.6%→42.1%, 28.4%→13.0%), 지급보험금 전체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65.2%→20.1%)하였음.

<표 III-9> 生命保險 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보험금지급율
FY'92	29,199	140,713	5,969	175,881	77.7
	-16.2	59.2	16.8	37.0	
FY'93	33,265	159,834	4,591	197,690	82.2
	13.9	13.6	-23.1	12.4	
FY'94	38,719	156,588	4,139	199,446	71.9
	16.4	-2.0	-9.8	0.9	
FY'95	50,163	168,864	5,105	224,042	63.5
	29.6	7.8	23.3	12.3	
FY'96	50,278	189,581	5,592	245,451	64.3
	0.2	12.3	9.5	9.6	
'97.4~8	22,490	85,511	1,816	109,817	68.4
	5.0	13.3	10.4	11.5	

註: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표 III-10> '97年 4~8月 生命保險 種目別 支給保險金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개	생존보험	2,070	55,770	906	58,746
		15.6	4.8	11.7	5.2
인	사망보험	1,525	3,770	232	5,527
		23.5	65.4	18.7	49.0
인	생사혼합	4,779	9,756	203	14,739
		4.7	14.3	-6.6	10.7
소 계		8,375	69,296	1,341	79,011
		10.3	8.2	9.5	8.5
단 체 보 험		14,115	16,216	476	30,807
		2.1	42.1	13.0	20.1
합 계		22,490	85,511	1,816	109,17
		5.0	13.3	10.4	11.5

註: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회사별 지급보험금은 지방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8.1%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기존사의 경우 7.0% 증가에 그침.

- 지방사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해약에 따른 환급금 증가율이 47.0%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III-11> '97년 4~8월 生命保險 會社別 支給保險金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기존사	15,862	62,908	1,601	80,370
	0.1	8.8	8.8	7.0
내국사	2,778	10,310	122	13,210
	23.4	20.5	27.6	21.2
합작사	1,597	4,249	40	5,887
	19.0	19.4	16.0	19.3
지방사	2,200	7,812	50	10,062
	13.8	47.0	21.1	38.1
외국사	53	232	3	288
	41.6	8.8	45.3	14.0

註: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費差益의 示顯

○ 1997년 8월 현재까지 대형 3사와 외국 1사만이 비차익을 시현하였는데, 그 규모는 1,96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389억원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實際事業費는 유지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와 수금비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회사의 內實經營으로

인한 사업비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한 데 기인함.

<표 III-12> 生命保險 實際事業費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신계약비	유 지 비	수 금 비	사업비계	초 과 사 업 비 율 ¹⁾
FY'92	19,874	8,111	2,706	30,691	-0.55
	27.2	16.4	26.0	24.0	
FY'93	23,709	9,441	2,956	36,106	-4.16
	19.3	16.4	9.2	17.6	
FY'94	35,042	12,722	3,325	51,089	0.65
	47.8	34.8	12.5	41.5	
FY'95	43,571	16,463	4,156	64,190	4.09
	24.3	29.4	25.0	25.6	
FY'96	45,550	18,654	4,127	68,331	-0.72
	4.5	13.3	-0.7	6.5	
'97.4~8	19,191	6,934	1,622	27,364	-6.6
	-0.2	1.9	-2.8	0.2	

註: 1) 초과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 대비 초과사업비의 비율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상품별로 보면 생존보험 중 노후복지연금보험을 제외한 生存保險, 生死混合保險, 死亡保險 및 團體保險 등 모든 종목에서 費差益을 시현함.

<표 III-13> '97年 4~8月 生保商品別 實際事業費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신계약비	유 지 비	수 금 비	사업비계	초 과 사 업 비 율	
개 인 보 험	생 존 보 험	7,271	3,085	857	11,213	-6.5
	사 망 보 험	7,812	2,586	441	10,839	-3.0
	생사혼합보험	3,277	772	255	4,304	-6.3
	계	18,360	6,443	1,552	26,355	-5.0
단 체 보 험	832	491	70	1,393	-28.7	
합 계	19,191	6,934	1,622	27,747	-6.6	

- 예정 및 실제사업비율 現況을 살펴보면 기존사의 경우 대형 3사가 비차익을 시현하여 실제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에 비해 2.4% 낮으나, 그 외의 그룹들은 모두 실제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계속적으로 비차손을 기록함.

<표 III-14> '97년 8월 生保會社그룹別 事業費率 現況

(단위: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 체	
	예 정	실 제	예 정	실 제	예 정	실 제
기존사	23.5	20.9	4.7	3.1	18.7	16.3
내국사	22.8	25.3	4.3	2.9	17.2	18.6
합작사	24.4	26.7	7.8	9.6	22.3	24.5
지방사	19.2	26.2	3.8	3.5	13.7	18.2
외국사	45.1	52.9	10.5	29.1	43.6	51.9
전체사	23.4	22.2	4.7	3.3	18.5	17.3

註: 사업비율은 收入保險料 대비 사업비의 비율임.

(3) 失效解約率 改善

- 유지율의 측면에서 13회차 유지율은 FY'94 이후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며, 25회차 유지율은 FY'94 이후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15> 維持率 推移

(단위: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13회차	58.3	59.1	58.3	56.9	55.8
25회차	40.9	41.7	40.7	43.1	43.3

○ 失効解約率は FY'9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작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19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8%p 감소한 12.2%를 나타냄.

-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그룹별로는 지방사가 25.4%에서 19.3%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기존사, 합작사, 內國社 및 외국사도 다소 감소하였음.

- 향후 실효해약율은 단기보험상품보다는 중장기보험상품의 판매,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고객의 니드에 적합한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표 III-16> 失効解約率 推移

(단위: %)

구 분	FY'93	FY'94	FY'95	FY'96	'97.8
개 인	30.9	29.0	28.5	29.0	12.8
단 체	17.9	15.3	15.8	15.6	7.7
전 체	30.2	28.4	27.8	28.2	12.2
기존사	28.8	25.5	24.7	26.0	11.0
내국사	34.9	37.4	37.5	36.9	16.5
지방사	39.4	35.4	34.2	33.2	19.3
합작사	33.0	40.7	45.0	43.0	16.3
외국사	28.3	32.6	25.7	20.8	8.5

註: 1) 효력상실해약률=효력상실해약액÷(년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97년 8월 수치는 변경된 산출기준을 반영한 것임.

(4) 收支差의 改善

○ FY'90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保險收支差는 FY'94, FY'95년

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FY'96에 5.0% 증가에 그쳐 증가추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금년 8월 현재에는 전년동기대비 45.2% 증가함에 따라 증가추세가 회복되고 있음.

-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의 0.2%p 下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지급율과 사업비율이 각각 1.0%p, 2.2%p씩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

(收入保險料 13.2% → 13.0%, 保險金支給率 69.4% → 68.4%, 事業費率 19.5% → 17.3%).

<표 III-17> 生命保險 收支差 趨勢

(단위: 억원, %)

구 분	보험수지차 ¹⁾		총수지차 ²⁾	
		증가율		증가율
FY'92	19,842	-51.2	62,138	-18.3
FY'93	6,598	-66.7	48,330	-22.2
FY'94	26,961	308.6	72,606	50.2
FY'95	64,648	139.8	117,959	62.5
FY'96	67,853	5.0	130,116	10.3
'97.4-8	22,949	45.2	52,962	25.6

註: 1)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

2) 총수지차 = 수입보험료 + 투자 및 기타수입 - 지급보험금 - 사업비 - 기타지출

- 總收支差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 주식시장의 침체 및 경기위축 등으로 보험수지차 증가율보다 19.6%p 낮은 25.6% 증가에 그침.

다. 資産運用收益率 下落의 持續

○ 1997년 8월 현재 資産運用收益率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도, 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주식시장 침체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의 惡化로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10.2%를 나타냄으로써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저조한 자산운용수익율은 일련의 대기업 부도에 따른 株式市場의 沈滯와 적정투자대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FY'97 하반기에도 연말의 대통령선거 및 계속되는 경기위축으로 수익률의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표 III-18> 生命保險 資産運用 實績

(단위: 억원, %)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율	
				총 자 산	운용자산
FY'92	451,551	423,018	47,204	11.9	12.7
FY'93	502,002	467,618	49,049	10.8	11.7
FY'94	576,810	539,169	55,750	10.9	11.7
FY'95	696,767	654,843	65,301	10.8	11.6
FY'96	832,888	787,384	75,836	10.4	11.1
'97.4-8	890,664	843,961	34,083	9.7	10.2

○ 회사별로 자산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現·預金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증권시장침체에 따른 유가증권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현·예금 비중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국사와 기존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회사가 적정 수익율을 보장하는 투자대상의 확보가 곤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貸出金の 경우 기업들의 부도에 따라 기업대출은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증가하여 전체 대출금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III-19> '97년 8월 生命保險 會社別 資産運用對象의 比重

(단위: %)

구 분	현·예금	유가증권	대 출 금	부동산	운용자산수익율
기존사	13.0 (11.4)	26.9 (28.6)	48.2 (48.1)	8.2 (8.3)	10.3 (10.6)
내국사	19.1 (11.6)	22.6 (22.8)	44.8 (49.0)	3.5 (4.0)	10.2 (10.6)
합작사	11.5 (12.3)	34.3 (31.1)	39.9 (39.7)	1.8 (1.4)	9.8 (11.2)
지방사	21.6 (24.8)	16.9 (15.1)	40.9 (39.1)	6.3 (4.0)	9.0 (10.1)
외국사	14.5 (22.3)	52.8 (43.9)	7.2 (6.5)	0.0 (0.0)	12.3 (12.1)
전체사	13.9 (12.2)	26.4 (27.5)	47.0 (47.2)	7.4 (7.4)	10.2 (10.7)

註: 괄호안은 '96년 8월기준임.

라. 新商品開發 活發

○ FY'97 上半期('97.4.1~9.30)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은 보장성

보험(단체, 특약 포함) 135종, 연금보험 17종, 생사혼합보험 31종, 교육 보험 1종, 단체보험 40종 등 총 204종(특약 포함)이 개발되었음.

- 保障性保險의 개발이 증가한 것은 가격자유화와 지급여력에 대한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 따른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경영내실화 추진이라는 공급측 요인과 대형사고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교통량 증가 등 제반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보장성보험에 대한 요구증가라는 수요측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표 III-20> FY'96-97 上半期 生命保險 新商品開發 推移

(단위: 건)

구 분	개 인 보 험						특 약	단 체	합 계
	교 육	연 금	생사혼합	보장성	상 해				
FY'97 상반기	배 당	1	17	11	37	1	16	19	92
	무배당	-	-	20	35	19	7	21	112
	합 계	1	17	31	72	20	23	40	204
FY'96	배 당	9	35	7	23	-	4	16	94
	무배당	-	-	10	19	-	10	-	39
	합 계	9	35	17	42	-	14	16	133

○ 商品開發의 特徵은 다음과 같음.

- 최근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이 적극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각종 대형사고 및 교통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험제도를 통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건강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어 보험급부를 고액으로 설정하여 치료 자금과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도 보장성보험의 상품개발 증가추세에 기여하고 있음.
- 생명보험에서는 기존에 특약으로만 운용할 수 있었던 傷害, 疾病, 長期看病保險에 대한 生·損保 兼營이 허용된 후 20종의 상해보험 및 11종의 상해특약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의 라이프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無配當生死混合保險 商品開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예년의 단체보험상품개발이 보장성보험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97년 상반기 단체보험은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 특약 등 다양하게 개발되었음.

마. 主要政策 推進現況

(1) 第3段階 價格自由化의 施行

- 1997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豫定危險率 및 利差配當의 自由化를 골자로 하는 3단계 자유화가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별로 위험률 및 이차배당이 차등화됨에 따라 계약자는 저렴한 가격의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는 이와 같은 가격경쟁에 대비하여 경영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임.

(2) 支給餘力制度의 엄격한 運用

- 1997년 8월 정부는 支給能力이 미달한 회사에 대해 「生命保險會社の 支給能力에 관한 規程」에 따라 증자명령 및 제재조치를 취했음.
 - 1997년 3월말 기준으로 支給餘力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가 18개사이며 부족규모는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1997년 3월말 현재 지급능력에 미달하는 생보사에 대하여는 증자를 명령하였고, '96년 3월말 현재 부족한 지급여력을 '97년 3월말까지 증자토록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퇴직연금보험 판매금지,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함.

(3) 金利連動型 附利利率 引下

- 금리연동형상품의 금리인하
 - 금리자유화 등으로 향후 금리가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금리리스크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생보업계는 1997년 하반기부터 금리연동형상품의 적립이율을 그 경과기간에 따라 0.2%~1.0%p 인하 조정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
 - 또한, 가산이율을 확정형에서 비례형으로 조정함에 따라 향후 금리하락시 금리리스크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損害保險

가. 收入保險料의 增加勢 鈍化

- 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成長率은 장기손해보험의 金融型商品 販賣 好調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른 특종보험의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성장율둔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996년에 22.8%, 19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0.0%의 증가세를 보여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I-21> 損害保險 收入保險料의 增加率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97.4~8	
국내	GDP(10억) ¹⁾	240,392	267,146	305,970	351,971	389,979	-
경제	증 가 율 ²⁾	5.1	5.8	8.6	8.9	7.1	-
손보	보 험 료 ³⁾	57,082	67,016	81,900	107,409	131,936	62,639
산업	증 가 율	22.1	17.4	22.2	31.2	22.8	20.0

註: 1) '96년실적은 잠정치임(기준: 정상가격)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기준: 1990년 불변가격)

3) 원수보험료기준이며 해약환급금이 공제된 실적임.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1997)」, 「보험통계월보(97.9)」

- 收入保險料 중 自動車保險과 長期損害保險(개인연금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8월 현재 손보전체의 85.0%로 두 보험종목의 市場支配 現象이 持續되고 있음.

<표 III-22> 損害保險 種目別 收入保險料 및 損害率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FY'96			'97. 4 - 8			
	보험료 ¹⁾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3,452	-7.1	2.6	1,434	-12.8	2.3	
해 상	3,641	-5.2	2.8	1,517	-16.6	2.4	
자동차	58,441	19.5	44.3	25,686	4.7	41.0	
보 증	5,992	-9.2	4.5	2,759	9.8	4.4	
특 종 ²⁾	7,935	20.0	6.0	3,670	28.9	5.9	
장 기	일 반	43,755	43.0	33.2	23,695	53.6	37.8
	연 금	8,719	21.7	6.6	3,878	12.8	6.2
소 계	52,474	39.0	39.8	27,573	46.2	44.0	
합 계	131,936	22.8	100.0	62,639	20.0	100.0	

註: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1997년 실적은 잠정치임.

2)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의 합계이며 기타 특종에는 해외 원보험과 항공보험을 포함되었음.

資料: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1996.

『보험조사월보』, 1997.9.

- 自動車保險은 自動車保有臺數가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정부의 자동차보유억제정책 및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4.7%의 성장율에 그치고 있음.
- 長期損害保險은 金利連動型商品의 판매호조와 지속적인 신규상품의 개발로 '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46.2%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함으로써 손해보험의 수위종목으로 부상하였으나, 個人年金保險은 '97년 8월 현재 12.8%의 增加率을 기록하여 성장세의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장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3.6% 성장하였음.
- 保證保險은 경기침체와 부도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이 위축됨에 따라 FY'96에 9.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9.8%가 성장하여 보험료증가세가 회복되었음.

- 特種保險은 産業化의 진전에 따른 각종 賠償責任의 수요증가, 政府發注工事に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확대, 종합보험의 성장세지속 및 새로운 보험수요로 '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8.9% 증가한 3,670억 원을 기록함.
-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은 1997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각각 12.8%, 16.6%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價格自由化 및 保險市場開放으로 인하여 보험요율이 큰폭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비교적 新商品 開發需要가 限定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나. 保險收支의 赤字反轉

- FY'96 총영업이익은 81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7년 8월 현재의 실적은 투자이익이 27.7% 증가한데 비해 보험영업이익이 7,3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총영업이익이 2,046억원의 적자로 반전함.

<표 III-23> 損害保險 收支差 推移

(단위: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이익	총영업이익
FY'92	-7,307	5,210	-2,096
FY'93	-9,312	6,367	-2,945
FY'94	-8,010	7,139	-871
FY'95	-6,901	7,764	863
FY'96	-10,054	10,870	816
'97.4-8	-7,032	4,987	-2,046
('96.4-8)	-3,795	3,906	115

註: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임.

○ FY'96 損保全體 保險營業利益은 그 동안 손보사 영업수지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自動車保險의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장기보험과 보증보험의 실적악화로 FY'95보다 45.7% 증가한 1조 54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97년 8월 현재의 보험영업이익은 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보증보험의 손실폭증가, 화재, 해상, 특종 등 일반보험 종목의 효율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인하 추세 및 사업비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92.4%가 악화(-7,032억원)됨.

<표 III-24> 損害保險 種目別 事業實績 現況

(단위: 억원, %)

구 분	보유경과보험료		손 해 액		손 해 율 ¹⁾		사 업 비		보험영업이익 ²⁾	
	FY'96	'97.8	FY'96	'97.8	FY'96	'97.8	FY'96	'97.8	FY'96	'97.8
화 재	2,778	1,157	1,570	713	56.5	61.6	1,419	500	-211	-56
해 상	2,718	1,015	1,150	438	42.3	43.2	983	425	586	152
자 동 차	53,914	23,968	40,104	16,190	74.4	67.5	16,864	7,236	-3,054	542
보 증	6,092	2,728	6,359	5,385	104.4	197.4	1,285	359	-1,553	-3,016
특 종 ³⁾	5,153	2,400	2,990	1,319	58.0	55.0	1,735	823	429	258
장 기	43,579	23,614	38,669	21,092	88.7	89.3	9,669	4,868	-4,756	-2,345
개인연금	8,753	3,882	7,749	3,925	88.5	101.1	1,762	739	-848	-781
기 타 ⁴⁾	621	258	402	129	64.9	50.0	183	105	50	24
합 계	123,609	59,022	98,993	49,190	80.1	83.3	33,899	15,055	-10,054	-7,032

註: 1) 손해액(손해조사비 제외)을 보유경과보험료로 나눈 것임.

2) 비상위험준비금은 종목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합계의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감안한 수치임.

3)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의 합계이며 기타 특종에는 해외 원보험이 제외됨.

4) 해외원보험과 외국수재 실적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_____ , 『보험조사월보』, 1997.9.

- 自動車保險의 保險營業利益은 FY'96에 -3,054억원으로 전년도의

-2,240억원에 비하여 다소 악화되었으나, '97년 8월 현재는 542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어 보험수지가 정상화되고 있음.

·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증가둔화, 責任保險 保險金 支給基準 引上, 保險金 原價의 上昇 등 營業收支 악화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FY'91(-1,187억), FY'92(-3,134억)에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였던 保證保險은 FY'95에 다소 개선의 조짐을 보였으나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 倒産 등으로 FY'96에 1,553억원, '97년 8월 현재 3,016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어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個人年金을 포함한 長期損害保險은 책임준비금적립액이 증가함에 따라 FY'96에 5,604억원의 영업손실을 시현, 전년도(-3,127억원)에 비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97년 8월 현재 3,126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 FY'96에 海上保險과 特種保險은 각각 586억원, 4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7년 8월 현재 각각 152억원, 258억원의 營業利益을 시현하고 있음.

다. 資産運用收益率의 小幅 減少

○ 손해보험사의 運用資産은 FY'96에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13조 3,559억원이며 1997년 8월 현재의 운용자산은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한 14조 8,176억원임.

- FY'96의 資産收益率은 주식시장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투자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總資産收益率이 전년대비 0.2%p 높은 8.5%를, 운용 자산 수익율은 전년대비 0.2%p 높은 10.5%를 기록했으며, 1997년 8월 현재의 운용자산 수익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낮은 9.3%의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음.

<표 III-25> 損害保險 資産運用 實績

(단위: 억원, %)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투자영업수익	자산운용수익율 ¹⁾	
				총 자 산	운용자산
FY'92	67,935	55,008	5,692	9.4	11.8
FY'93	79,730	65,274	7,038	10.0	12.4
FY'94	95,847	78,182	7,907	9.4	11.7
FY'95	127,114	104,478	8,908	8.3	10.3
FY'96	162,279	133,559	11,862	8.5	10.5
'97.4-8	179,957	148,176	4,987	7.7	9.3
('96.4-8)	(142,047)	(116,619)	(3,906)	(7.9)	(9.6)

註: 1) 자산수익율 = 2 × 투자수익 ÷ (연초자산 + 당월말자산 - 투자수익) × 12/m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_____, 『보험조사월보』, 1997.9.

라. 海外 再保險去來의 收支惡化 持續

- FY'96중 世界 再保險市場은 재보험자의 실적개선추세에 따라 '90년도 초반의 硬性化(Hard Market)基調에서 벗어나 軟性化(Soft Market)基調

로 전환되어 해외재보험 출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FY'96 海外再保險 去來實績은 受再去來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1억 8,825만달러의 적자를 전년도의 1억 6,793만달러의 赤字를 약간 상회하는 收支惡化가 지속되고 있음.

<표 III-26> 海外再保險 去來實績

(단위: 천달러)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
수 재	수 지 차	-12,739	-9,842	-6,663	-265	2,904
	손 해 율	97.1	91.6	86.3	69.9	64.5
출 재	수 지 차	-91,387	-59,345	-159,617	-167,664	-191,158
	손 해 율	55.4	77.9	49.1	52.7	46.2
순 수 지 차 액		-104,126	-69,187	-166,280	-167,929	-188,254

註: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것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 종목별 수지상황은 保證保險이 500만달러, 長期保險이 46만달러의 赤字를 보일뿐 특종 1억 3,487만달러를 비롯하여 火災 4,265만달러, 海上 1,131만달러, 自動車 489만달러의 赤字를 나타냄.

- 海外出受再 狀況의 特徵은 支給保險料(569,262천달러)가 收入保險料(45,137천달러)의 약 13배로 出超現象이 계속되고 있으며, 平均損害率도 수재손해율 64.5%, 출재손해율 46.2%로서 수재손해율이 18.3%p나 높아 海外再保險 순수지차액의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마. 主要 政策推進 現況

(1) 3段階 價格自由化의 推進

- 건전한 價格競爭을 통해 保險産業의 효율성과 계약자의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1단계 範圍料率 시행종목(선박, 배상책임, 기술보험 등 기업 성보험종목)에 이어, 1997년 4월 1일자로 제2단계 범위요율 종목(적하, 화재 및 가계성보험종목)에 대한 自由料率制度가 시행되었음.

<표 III-27> 自由料率의 適用效果('96.4.1 自由料率適用種目)

구 분		범위폭	보험료증감 효과(백만원)	증감율(%)
해상보험	선박보험	±30%	-526	-2.1
	운송보험	±30%	-1,144	-13.8
자동차보험		±10%	-	3.4
배상 책임	영업배상	±30%	-590	-4.6
	선주(유도선)	±15%	-13	-1.4
	도로운송	±30%	-377	-7.3
	가스배상	±15%	-458	-6.7
체육시설		±15%	-75	-4.8
근재보험		±30%	-3,216	-3.0
기술보험	기계보험	±30%	-25	-2.5
	조립보험	±30%	-288	-6.0
	건설공사보험	±30%	-23	-1.1
동산종합보험		±30%	-8,224	-9.8
도난보험		±30%	-551	-8.0
합 계			-15,510	-5.8

註: 1) 보험료는 협정보험료 기준임.

2)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경력요율의 범위요율적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계약자별 범위폭을 평균한 실적임.

3) 증감효과 = (범위보험료 - 표준보험료) / 표준보험료 × 100

資料: 보험개발원, 『FY'96 요율검증보고서』, 1997.

- FY'96을 기준으로 자유요율제도의 시행효과를 살펴보면 제1단계 대상종목 중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에서 보험료 할인효과(-155억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할인폭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FY'95 : -1.8% → FY'96 : -5.8%)을 보이고 있음.
- 화재, 적하, 상해, 종합보험 등 제2단계 범위요율 적용대상종목은 제1단계 대상종목에 비해 범위요율 적용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로스보더가 허용된 적하보험과 해외여행보험 등을 중심으로 할인율이 점차 커지고 있음.

(2) 自動車保險의 制度改善

- '97년 8월에는 責任保險 보상한도 확대 및 기본요율보험료의 범위요율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 保險金支給基準 현실화 및 責任保險 補償限度 확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責任保險料의 할인할증제 도입, 基本保險料 自由化로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는 合理的인 料率體系가 이루어짐.
- 1996년 8월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보험금 항목 중 위자료, 장례비, 취업가능연한, 기타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保險金 支給基準이 상향된데 이어 1997년 8월 위자료지급 대상확대와 간병비신설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료 조정없이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 1996년 8월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範圍料率 制度導入에 이어 1997년 8월에 책임보험의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이 도입, 시행되고 있음.
 - 개인용 $\pm 3\%$, 업무용 $\pm 5\%$, 영업용 $\pm 10\%$ 의 범위율을 둠.
- 責任保險 보상한도가 1996년 8월 사망/부상/후유장해기준 3,000/1,000/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다시 1997년 8월부터 6,000/1,500/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責任保險에도 “割引割増率과 保險加入經歷料率”을 1996년 8월의 일부도입에 이어 1997년 8월부터 전부도입하여 우량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3) 長期損害保險 標準危險率의 制定・施行

-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위험율이 1997년 4월 1일부터 자유화됨에 따라 최근 3개년간(FY'93~FY'95)의 기초통계자료를 토대로 기존의 위험율을 수정한 標準危險率을 제정하고 표준위험율의 $\pm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주요 擔保危險別 표준위험율의 변경내용
 - 사망 및 후유장해 위험율 : 기존 위험율의 11.8% 인하
 - 의료비담보 위험율 : 기존 위험율의 18.9% 인하

- 배상책임담보 위험율 : 기존 위험율의 18.9% 인하
- 화재손해담보 위험율 : 기존 위험율의 25.0%(일반물건은 17.1%) 인상

(4) 火災·特種保險의 料率體系 全面改編

○ 가격자유화의 본격 시행, 보험브로커제도 도입, 재보험자유화 등의 환경변화에 맞춰 '97년 10월 1일자로 화재·특종보험의 표준요율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화재보험 고액물건, 기술, 배상책임보험 등은 재보험자로부터의 구득요율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표준요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受容可能한 合理的인 範圍內에서의 競爭'을 유도하고자 표준요율의 사용범위를 확대함.
- 이러한 표준요율의 사용범위 확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속한 요율 제공 및 보험요율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원보사의 실질적인 언더라이팅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표준요율 적용대상 확대
 - 화재보험 : 보험가입금액 24억원 → 1,500억원(영문계약)
 - 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액 1억원/인당, 10억원/사고당 → 5억원/인당, 10~30억원/사고당
 - 기술보험 : 보험가입금액 20억원~120억원 → 1000억원

- 표준요율 체계의 개선

- 화재보험 : 위험분류를 4단계에서 3단계(주택, 일반, 공장)로 축소, 등지요율 폐지, 할인할증요율의 기본요율화, 고액계약 할인 대상계약의 1조원까지로 확대
- 배상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 신설
- 기술보험 : 고액보험계약 할인신설, 자기부담금 설정금액 확대 및 할인폭 확대